

# 張維의 辭賦文學

— 修身 頌祝 呪術 —

김 성 수 \*

<目次>

|         |        |
|---------|--------|
| I. 序論   | IV. 呪術 |
| II. 修身  | V. 結論  |
| III. 頌祝 |        |

<국문 초록>

張維는 漢文學의 大家이자 동시에 辭賦文學史의 大尾를 장식하는 굴지의 辭賦家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사부문학가로서 논의된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의 사부가로서의 위치를 매김하고, 그의 사부문학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면의 제한이 있어 概觀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 논의되는 것은 그 주제가 修身, 頌祝, 呪術에 해당하는 작품 10편이다. 분량이 많아 부득이 번역문은 제외하여 지면을 절약하였다. 대신 사부의 형태 규명에 중점을 두어 각 작품의 3단구성과 押韻, 그리고 字句形式을 일일이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다. 아무래도 장르 구분의 요체는 형식적 요소에 더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사부의 갈래 정립과 개념 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아울러 작품의 내용적 성격에 대해서도 유념하고자 한다. 이로써 辭賦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張維, 辭賦, 修身, 頌祝, 呪術, 構成, 押韻, 字句

\*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kimss@kongju.ac.kr

## I. 序論

張維(1587-1638; 宣祖20-仁祖16)는 德水人이고, 字는 持國, 號는 谿谷, 默所이다. 父는 판서 雲翼이었고, 자신은 효종비 仁宣왕후 生父였다. 일찍이 沙溪의 문인으로 들어갔으며, 1605년(선조 38년)에 司馬試, 1609년에 문과를 하였다. 仁祖反正에 참여하여 功臣이 되었으며, 大司諫·大司憲·大提學·右議政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병자호란 때에 講和論에 서는 현실적인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이기도 했다. 또한 조선시대에 陽明學者로 지목될 만큼 남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으며, 知行合一을 중시한 유학자이다. 그는 漢學四大家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다. 또 『陰符經』<sup>1)</sup>注解』를 쓴 것을 보면 그는 고루한 유학의 구속에 얽매인 학자도 아닌 것 같다. 이러한 행위는 陽明學을 추구했다는 것과 함께 당대의 세파에 시달릴만한 요소였지만 왕실의 姻戚으로서, 西人의 비호와 함께 官運이 따른 편이라서 비교적 순탄한 宦路를 보냈다. 死後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文忠을 諡號로 받았다.<sup>2)</sup>

사부문학가로서 그가 갖는 의의는 우리 辭賦文學史를 마지막으로 장식했다는 데에 있다. 그에 앞서 우리 사부문학은 이미 전성기를 지나 쇠퇴기에 들어있었다. 科體辭賦의 영향으로 사부가 점차 경직되고, 固着된 형식과 내용으로 문학적 향기를 잃어갈 때에, 장유는 마지막으로 사부의 본 면목을 살리기에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에 앞서는 뛰어난 辭賦家가 여럿 있었지만 그 후로는 작품의 양이나 질에서 그를 능가할 만한

1) 『陰符經』은 출처 미상의 중국 전래 道術書, 혹은 兵書로서 儒家 이념과는 상치된다.

2) 여기까지 필자의 「張維의 辭賦文學」, 『漢字漢文教育』 19,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7.에서 인용.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를 마지막 사부의 대가로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연구로써 일단 ‘張維의 辭賦文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가 科擧를 管掌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사부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辭賦는 詩에 비해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변화의 폭이 넓고 다양하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작품의 경향이 매우 다양하고, 時勢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과 추세는 당대에 科擧에서 문사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했는가에 달려있다. 張維가 文衡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당대의 사부문학의 추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다. 당대의 文士, 科擧應試生들이 그의 辭賦를 모범으로 삼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보면 당대의 사부문학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도 장유의 사부문학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도 張維의 사부를 보면 당대의 사부 작품의 추세와 같지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된다. 當代의 사부 작품의 추세는 형식적으로는 6언 句型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道學이나 讚頌에 치중하고 있었다.<sup>3)</sup> 그런데 그의 작품은 이러한 형식이나 내용과는 달리 前代의 전형

- 3) 당대의 科擧 행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근래 科擧에 오르는 자, 태반이 宿構에 익은 자들이다…[今世科場克捷者大半宿構(星湖僊說)詩門]  
여기서 宿構란 상투적으로 정형화된 科體辭賦를 말한다.

沈思順과 張玉은 동문수학하였는데 思順이 하룻밤 東賦 3백을 외우고, 玉도 밤새워 東賦를 외웠다 … 李璋이 크게 웃기를 ‘너희들이 글을 알지 못하면서 東文을 읽지 않으니 어찌 과거에 오르겠는가?’[沈思順與張玉同業 思順一夜誦東賦三百 玉一夜訟東賦 … 璋大噓曰爾屬不解文 寧有不讀東文而能捷科者乎[於于集]]

여기서 東賦 東文이란 固定화된 朝鮮式 科體詩賦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宿構와 상통하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서는 金星洙, 『辭賦文學研究』, 公州大學校出判部, 2007. pp.204-210. 에서 더 참고할 수 있다.

적인 사부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가 文衡으로서 이러한 경향의 작품을 썼다는 것은 당대의 문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그의 사부작품은 당대 사부의 科場的 固化 추세에 제동을 걸어 사부의 본 면목<sup>4)</sup>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사부문학의 문학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는 사부문학가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우리 사부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문인을 추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엄선해 본다면 李奎報, 徐巨正, 申光漢, 李荇, 許筠 등을 들 수 있다. 작품의 질이나 양을 같이 생각해 보고, 다른 갈래의 문학의 성과도 같이 고려해 본 결과이다.<sup>5)</sup> 張維를 이들과 아울러 사부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관점 외에도 사부의 大家로서 시대적으로 許筠의 뒤를 이어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작품의 수량으로 보아도 장유는 諸家の 맨 뒤에 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를 능가할 만한 辭賦家를 다시 찾기 어렵다는 것이 그를 ‘마지막 사부의 대가’로 지목할 수 있는 이유이다.

張維는 모두 17편의 작품을 남겼다. 다른 대가에 비해 많은 작품을 남

4) 사부의 本面目이란 아직 固化되기 이전의 다양하고 변화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전형적인 사부를 말한다.

5) 이들의 문학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있어 그 업적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그 辭賦文學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아래와 같은 연구로써 그들의 文豪다운 면모를 입증한 바 있다.

拙稿, 「李奎報의 辭賦文學 補Ⅰ」, 『한어문교육』 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李奎報의 辭賦文學 補Ⅱ」, 『한어문교육』 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0.; 「許筠의 辭賦文學」, 『인문사회과학연구』 13, 공주대학교, 1998.; 「徐巨正의 辭賦文學Ⅰ」, 『한어문교육』 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1.; 「徐巨正의 辭賦文學Ⅱ」, 『한어문교육』 10,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2.; 「申光漢의 辭賦文學-矢志類-」, 『漢字漢文教育』 1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申光漢의 辭賦文學-浪漫 追慕類-」, 『漢文古典研究』 15,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申光漢의 辭賦文學-讚頌 修身類-」, 『漢文古典研究』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긴 작가는 아니지만 사부에 대한 열정과 영향력은 누구 못지 않았다.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 서술의 편의상 주제별로 묶어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 그 중 經營濟世에 속하는 작품 7편은 이미 발표한 바 있었고,<sup>6)</sup> 이제 나머지 10편을 修身, 頌祝, 祝術로 나누어 여기에 한데 묶어 발표하는 것이다. 修身은 지배계층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과 학문도야를 내세운 일련의 작품들을 여기에 묶었다. 頌祝은 사부문학의 주요한 문학적 기능으로서 대상물에 대한 칭송과 찬송을 드리는 내용을 말한다. 祝術은 원래 신비적인 내용이라서 反儒家的 성향이 짙지만 유가들은 자주 이러한 작품을 남겨 오히려 흥미 있는 일이다. 10편을 한 번에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지면과 기회의 제한이 따르므로 부득이한 일이다. 그래서 각 작품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작품의 概觀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아직 사부문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 사부문학 연구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라서 사부문학의 개념, 인식마저 뚜렷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무엇보다도 사부문학의 일반적 개념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 여기에서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써 각 작품에 필자 나름대로 構案한 사부문학의 요건을 적용, 검토하여 거기에서 사부문학의 일반적 개념을 귀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사부문학의 요건이란 형식면에서 3단 구성, 압운, 그리고 어느 정도 定型화된 字句의 구사 등이다. 3단구성이란 序 - 本 - 結의 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일부의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부를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어 이를 사부의 定型으로 규정할 수 있다. 押韻은 대부분의 사부에서 定型化되어 그 형식적 요건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定型은 漢詩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다른 散文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사부를 특징지을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 충분하다.

사부에서 押韻은 작품의 형식뿐 아니라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6) 拙稿, 「張維의 辭賦文學」, 앞의 논문.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작품의 사건전개와 의미의 단락이 압운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인데 사부 작품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의해야 할 요건이다. 사부의 字句形式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부 특유의 형식이 분명히 따로 있어 사부를 규정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 요건들이 모든 작품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脫定型的일 수도 있고, 형식의 파악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사부의 본문을 配列하는 하는 일은 산문과 같이 이어 적는다거나, 詩와 같이 일정하게 配行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부가 詩와 散文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일정한 配列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押韻에 따라서 配行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편의상 두 개의 押韻을 한 行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몇 가지 요건들은 필자가 그 동안 사부를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출해 낸 성과로서 이 요건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한 또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번역문을 과감히 생략하였다. 독자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나 이미 國譯本이 나와 있으므로 지면을 줄이는 불친절을 양지 바란다. 기존의 번역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번역의 문제는 다음의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修身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였듯이 修己化俗-자신을 닦아서 백성을 교화시킴-은 儒家의 본질적인 목표요, 실천덕목이다. 儒家들이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하였던 당시에, 그들이 또한 文人이었던 까닭에 가장 전형적인 사대부문학이었던 辭賦文學이 이러한 정신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修身은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儒家 精神德目이다. 수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대부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教化風俗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修身은 立身의 바탕이요, 揚名은 化俗의 성과이다. 수신은 입신양명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요, 유가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인 바탕이다.

性理學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그 이념에 따른 사부를 많이 지었는데 대개는 성리학 특유의 思辨的이고, 이념에 치중하는 경향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주의 生成原理와 天地運行的 섭리에 관심이 많았고, 理氣를 궁구하면서 내면적인 心性 성찰에 주력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佛家的인 禪의 경지나, 道家的인 玄妙의 세계까지 출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張維의 修身은 이러한 관념, 이념의 세계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당대를 지배했던 性理學보다는 陽明學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사부문학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는 杜門面壁하고 앉아서 공허한 理氣를 따지기보다는 三寅劍, 寶劍을 들고 적극적으로 不條理한 세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 儒家였다. 이야말로 知行合一을 표방한 陽明學의 정신이요, 孔孟의 정통유가의 본령에 근접한 자세였다.

그래서 그의 修身辭賦는 내용이나 소재가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다. 여기에 속하는 그의 사부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세계도 아니고, 난해하고 현학적이지도 않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요, 상식적인 가치에 충실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부의 문학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 1. 三寅劍賦 屏序

余偶得三寅短劍 盖鑄於寅年月日者也 世傳三寅之劍 能辟除不祥 余故愛而服之 爲賦以贊之

我有寶劍 成於三寅● 長未滿尺 晶光燁然●  
 夫寅<sup>7)</sup>者三陽之會 四氣之元● 陽剛而明 元首而尊●  
 物所資始 其德則仁● 十二之屬 寔爲虎焉●  
 奮其威猛 百獸所君● 藁狐野狂 藁之一齷●  
 維歲月日 萃于茲辰● 劍鍾其精 而全其神●  
 故其爲用也 攝魔驅邪 揮霍妖昏● 魑魅孺狂 莫敢近旃●  
 亦可光芒六合 衛身攘姦● 妖耍(腰)亂領 翦若芟菅●  
 善藏時用 前無堅頑● 然則是器也道人御之則\*  
 爲金剛之寶 眞武之杖\* 旌陽洞賓腦後之丸●<sup>8)</sup>  
 忠臣請之則爲尙方<sup>9)</sup>之斬馬而佞藥膽寒● 烈士奮之則爲荊<sup>10)</sup> 飛<sup>11)</sup>之擗蚊而長江戢瀾●  
 寧爲土中之龍淵<sup>12)</sup> 衝紫機於星躔● 不願與鉛刀爭鋒 覬俗子之見珍●  
 遂號之曰元陽勝邪蒼精之劍\* 朝夕服之 未嘗離身●<sup>13)</sup>

비교적 단형에 속하나 字句는 四六體<sup>14)</sup>를 구사함으로 해서 매우 세련된 사부의 형태를 하고 있고, 押韻도 잘 갖추고 있다. 短篇 중에 세 군데의 缺韻은 다소 많은 편이지만 통상 사부에서 허용될 정도여서 문제될

- 
- 7) 寅은 범으로 용맹의 상징. 寅月은 正月·春·木의 三陽이 겹친다. 三寅劍은 寶劍을 말한다.
  - 8) 金剛은 불교에서 수련을 말함. 眞武·旌陽·洞賓은 전설상의 신선. 腦後는 力士.
  - 9) 尙方은 간신의 목을 베는 官製 劍. 漢 朱雲이 황제의 허락을 받아 간신을 베었다는 갈.
  - 10) 荊軻. 燕 太子 丹의 청을 받고 秦王을 죽이려다 실패한 義俠刺客.
  - 11) 岳飛. 宋의 名將으로서 宋의 부흥을 위해 싸우다가 모함에 걸려 억울하게 죽음.
  - 12) 龍淵. 楚의 寶劍. 별자리에서 紫氣가 뻗쳐 땅 속에서 파냈다고 함.
  - 13) ●은 押韻, \*은 缺韻 표지. 이하 같음.
  - 14) 漢文의 字句形式의 하나로 4字, 6字를 교차시켜 변화 있는 규칙성을 유지한다. 4, 6마리의 말이 整然하게 수레를 끄는 모양이라는 데에서 비롯하였다. 整齊된 散文이나 세련된 韻文에서도 채용되는 것으로 辭賦에서 釀成되었고, 지금도 가장 세련된 文言文으로 사용되고 있다. 駢麗文, 駢麗體, 駢文이라고도 한다.

것이 없다. 并序가 따로 앞에 나와 있어 머리 구실을 하고 있고, 미약하나마 결말도 가지고 있어 사부의 3단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并序는 작품의 머리 구실을 하지만 본문과는 달리 압운을 하지 않는다.

작자가 并序에서 밝힌 것을 보면 우선 이 작품은 寶劍에 대한 찬송이다. 그러나 三寅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몸에 간직한다는 의도는 단순히 名劍을 愛藏하는 행위에 그치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세상의 사악한 기운을 정벌할 수 있는 劍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신념을 다짐한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삼인검은 곧 작자가 견지하고 있는 意志의 상징물이라는 것이다. 작자가 실제로 삼인검을 간직하는 것과 상관없이 삼인검이 갖고 있는 辟邪顯正의 기능은 작자가 세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일하다. 작자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가 칼이라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보검에 대한 찬송이라기보다는 의지의 다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보다 원의에 가까울 것이다. 그의 다른 작품인 寶劍辭<sup>15)</sup>와 같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더욱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自我와 인격을 다지고 수련하는 의지를 나타낸 修身類로 묶었다. 이러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주제표현 방식은 사부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통상적 수사 수단이다.

## 2. 次韻幽通賦 并序

班孟堅作幽通賦 盖效屈子離騷 其造語之奇奧 託意之深遠 非詞人之賦所能及也 余少而喜讀焉 既久益有所感 漫爲次韻 首舉性命之原 次及古今世變 中敍已\*已를

15) 寶劍辭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

寶劍出兮光煌煌◎ 人不識兮名干將◎  
 雌雄離兮中夜鳴◎ 發而視之兮浮雲驚◎  
 南山崔嵬兮下有深潭◎ 中有老蛟兮牙角峩峩◎  
 我欲斬之兮阻重波◎ 嗟嗟我刀短兮奈爾何◎  
 嗟嗟我刀短兮奈爾何◎

고침.志 感慨乎世道之溷濁 禍福之舛錯 而終之以天定之常 修身俟命之道焉 命辭託物 頗用其體 盖欲自紓鬱抑 雖蒙效顰之誚 不暇恤也 其辭曰

於玄造之物穆兮有自然之宰靈● 幹萬化以不遺兮靡形色與臭聲●  
 命斯人之最靈兮超品族之秭京● 含明覺而不昧兮怨而號兮權謠●  
 肇生養之窳鑿兮爰食粒而居廬● 義文闢而道顯兮津萬歲以永濟●  
 德既衰而有爭兮干戈起爲厲階● 仰熙皞之至治兮想勛華而長懷●,  
 慨三后之不復兮悲盛化之日遠● 既醇澆而朴散兮紛道湮而德玷●  
 寢淪墊於冥兮何有寐而無寤● 諒大運之已衰兮徒萬象其彷彿●  
 咨吾生之不辰兮值皇道之淪墜● 處夷裔而蒙蔽兮仰三光而未察●  
 獨塊立而蠢居兮混奕翹與爲對● 念皇天之均賦兮懼衷靈之終迷●  
 遂奮志而自厲兮匪聖猷其曷綏● 帝在我而匪遠兮奚神明之外祇●  
 惟無妄與無適兮竊服膺此遺戒● 感馳景之邁逝兮盛年儻其難再●  
 勗有聞而亟行兮喟虛徐其何俟● 知人一而已百兮固聖訓其昭在●  
 勤孳孳以待斃兮庶大讐之幸寡● 過此往而不息兮指聖塗而誰御\*  
 既和理之實中兮盛榮賁以華子● 騰藻采之孔陽兮何衆美之叢已●  
 期推己以周物兮全聖功之終始● 世幽險以側僻兮紛否榮而臧戮●  
 服奇衰而志得兮循渠度而身蹙● 薦闢茸於廊廟兮賢哲窮而野伏●  
 鴉巢梁而恣睢兮鳳在笱而畏逼● 民好惡其孔舛兮求天道而焉得●  
 舉靡漫而事化兮夫孰知其不可● 子余身之獨潔兮恐不免夫世禍●  
 亮寸膠之澄河兮吾已知其無補● 欲抑操而求比兮誠不忍乎枉道●  
 思專直而獨行兮柰苗悴而莠茂\* 羌猶豫而莫蔽兮獨煩替其曷已●  
 心凝注而不釋兮夢余游乎靈汜● 選神人而致敬兮爰拱手而促趾●  
 遡人道之繆鑿兮詰神化之玄軌● 曰萬彙之職職兮率流出於二五●  
 人參三而最貴兮異禽蟲與狼虎● 固惠吉而逆凶兮類符契之相耦●  
 然時命之不齊兮窮達殊於孔姬● 寢乖錯而失常兮惡反祥而善災●  
 盖氣數之適然兮非天理之不周● 諒天定之勝人兮寧此理之味幽●  
 巧往蹟而昭著兮又何待乎蒼龜● 文膺命以撫夏兮始幽繫而愁謠●  
 孔棲遑而率野兮垂萬歲之教條● 苟秉德之不喪兮雖近塞而遠流●  
 固屯亨之相襲兮疇有消而無息● 惟罔生之幸免兮果天道之本縮●  
 勉自篤於爲善兮神鑿下之無忒● 承靈訓而惕寤兮忽自失其曩惑●  
 知無親而與善<sup>16)</sup>兮悟配命之求福<sup>17)</sup> 屈何煩於訊龜兮賈何勞於問鵬<sup>18)</sup>

懿前聖之制行兮不于命而于諠● 惟是從而非違兮豈利超而害避●  
 順在天而病己兮靡外故之我累● 泝往古以遐觀兮挹賢達之風聲●  
 志不淫於紱冕兮操益固於紫荊● 由脫屣於南面兮葆冲真以不傾●<sup>19)</sup>  
 敖一視夫得喪兮處令尹<sup>20)</sup>而匪榮● 克遺物以養恬兮斯達士之攸程●  
 能舍生而取義兮亦先覺之謨訓● 夷餓死而得仁兮尾流尸以存信●<sup>21)</sup>  
 雖天闕於一時兮寔樹烈乎千載● 惟天地之浩浩兮閱萬古之遞代●  
 渺吾生之寓形兮甚海粟之麼微● 得中處而並立兮賴靈寶之天開●  
 顧操術之孔約兮曰篤敬與忠信● 克勤行而敬守兮終可達乎道真●  
 不失常於遇變兮能制權而合經● 期崇廣之合德兮允大人之踐形●  
 景前修而難作兮託遺篇以抒情●

系曰乾元播物 正性命●兮 復初盡倫 其惟聖●兮  
 君子之道 出與處●兮 不失其誼 斯世表●兮  
 理爲道體 義其用●兮 味此則物 物孰痛●兮  
 明明我性 超空色●兮 庶全其天 游聖域●兮

并序에서 밝힌 대로 이 작품은 漢 班固의 「幽通賦」에 次韻한 것이니 押韻은 原作과 한 자의 차이도 없다. 따라서 분량도 原作과 같고, 내용도 닮은 곳이 많다. 그런데 압운에 있어 오늘날의 음운체계에 의하면 두 곳에서 缺韻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班固의 原作과 동일한 韻字運用이다. 그러니 작자가 의도적으로 缺韻을 노렸다고 보다는 原作에 충실히 次韻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班固가 본래 絶운을 했을 가능성보다는 原作

16) 『老子』 79장, “天道無親 常與善人”

17) 『詩經』, 「大雅」, “永言配命 自求多福”

18) 屈原은 어찌 번거로이 점을 쳤으며, 賈誼는 어찌 헛되이 鵬鳥에게 물었는가? 굴원의 「離騷」에 점을 치는 얘기가 나오고, 漢의 賈誼는 「鵬鳥賦」를 지어 자신의 불우함을 한탄하였다.

19) 許由가 帝位를 버렸다.

20) 孫叔敖. 楚의 현인. 세 번이나 영윤에 오르고 내렸으나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21) 伯夷, 叔齊가 굶어 죽어 仁을 이루었고, 尾生이 죽음으로 신의를 지킨 사실을 말한다.

의 당시에는 이것이 通韻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압운의 기준도 시대마다 같지 않다면 原作과의 천 오백여년의 시대적 차이는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句型의 형태도 역시 원작과 별 다름이 없다. 구성에 있어서도 并序와 亂詞<sup>22)</sup>인 系曰을 원작과 같이 사용하여 탄탄한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次韻으로 인한 형식의 모의성이 강하여 작품의 독창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형식에 있어서는 원작에 次韻한 작품이니 모의성이 두드러진 것은 말할 것 없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작자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다. 并序에서 밝힌 것처럼 原作의 失意와 탄식에 그치지 않고 ‘亮寸膠之澄河兮吾已知其無補-修身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뜻’을 다짐하면서 적었다는 점에서 원작을 넘어서는 주제의식이 더해진 것이다. 이러한 修身에 대한 다짐은 序文뿐 아니라 系曰 이하의 결말에서도 요약되어 있다. 班固의 「幽通賦」가 세상의 부조리와 자신의 불우를 탄식하며 失意로 내용이 채워져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원작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작자의 의지가 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는 창의성의 발휘라고 할 만하다.

### 3. 蛙鳴賦

仲夏之月 霏霖浹旬● 潢潦汎濫 后土沉湮●  
 默所子屏居于西郭之委巷\* 環堵之宮 翳于蓬藿●  
 連以幽藪 帶以污瀆● 奧草蒼蔚 泥濘漠漠●  
 群蛙據焉 爲其窟宅● 生育繁息 厥麗不億●  
 乘時得意 叫呶自嬉● 命傳引類 張頷樹頤●

22) 辭賦에서 결말의 標識로 쓰인다. ‘亂’은 結末, 總括, 要約, 整理 등의 뜻으로 사부의 結末을 표시한다. 보통 여기처럼 亂曰을 비롯하여 歌曰·系曰·訊曰·諱曰 등이 다양하게 쓰이나 의미는 동일하다. 사부의 3단 구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結의 표지이다.

齊聲合響 若訐若爭● 閤閤殷殷 靡晦靡明●  
 盖似夫萬戶之聚 梁齊之都● 轂擊肩摩 喧闐乎九衢●  
 又如昆陽<sup>23</sup>之戰 涿鹿之帥● 鼓譟轟天 車騰馬馳●

默所子方避喧習靜 自適乎牢騷閑寂之域● 卒然聞此 形神不攝 視聽煩惑●  
 絃歌中輟 佔畢廢閣● 瞑不安榻 坐不佔席●  
 若狂若醒 昏亂匪側● 方將命蠓氏<sup>24</sup>勅健僕●  
 試洒灰之方 兼箠扶之策● 悉群醜以殲殄 靡易種以遺育●  
 去所憎於耳目 然後得以媮快● 事固有不如意者獨沈吟而永喟●  
 客有過而哂者曰甚矣子之惑●也  
 盖未通乎人理之變 與夫物性之適●者也  
 芒蕩大包 萬類並生● 稟形受氣 天機自鳴●  
 各率其性而宣其情● 非以供乎吾人之瞻聆●  
 等是人也 好惡亦殊● 彼咸池<sup>25</sup>九韶之要妙猶見非於墨氏之徒●  
 子安能使蠢動夥聲形之繁 舉以充子之娛樂●  
 彼又安能易己之性 枉己之天 惟以悅子之耳目●  
 且夫最靈之族 衿裾之列● 心聲所發 可惡非一●  
 子胡不察 蛙黽是誅● 略舉梗槩 可推其餘●  
 道烏乎隱 靈言滋起● 澤偽亂真 飾似混是●  
 祇園<sup>26</sup>之教 稷下之辯● 百氏競馳 雷轟浪卷●  
 簧鼓宇宙 眩亂黜聖● 蛙有是哉 乃蠹乃賊●  
 神徂聖伏 大雅委地● 妖音促響 銜淫售異●  
 雕鏤月露 唵呀飛走● 華屏實 傳(傳)譌襲陋●  
 嘲啾聒亂 正聲以斲● 蛙有是哉 乃蠹乃蠹●  
 讒人罔極 緝緝翩翩● 謠詠是工 敗類戕賢●  
 顛倒正邪 變亂是非● 文姦濟惡 以逞其私●  
 止棘之蠅 詩人所疾●<sup>27</sup> 蛙有是哉 乃鬼乃蠹●

23) 昆陽은 後漢 光武帝가 王莽을 격파한 곳. 涿鹿은 黃帝가 蚩尤를 격파한 곳.  
 24) 蠓氏 : 周나라의 官職名. 개구리 맹꽂이를 퇴치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25) 咸池는 堯의 악곡명. 九韶는 舜의 音樂曲名.  
 26) 祇園은 석가가 佛法을 講하던 곳. 稷下는 齊 宣王이 천하재사들을 모았던 곳  
 27) 『詩經』, 「青蠅」, “營營青蠅 止于樊 愷悌君子 無信讒言”

凡茲數者 亂之源而偽之的● 大足以混淆道術●  
 小足以覆敗家國● 仁人志士痛心切骨●  
 思欲拔本塞源已其禍亂而不可得●者也  
 若蛙者陰陽賦其氣 造化成其質● 生於泥淖 處於污澤●  
 跳梁乎井幹之上 入休乎缺甃之隙●  
 自在而鳴 群和互荅● 無求於人 不忤於物●  
 縱喧門市之可厭 亦何異夫吾人之叫呼而譁● 蓋物我之一致 各自安其所而樂其適●  
 在昔達者 知魚之樂● 亦有先正若張朱氏 喜驢鳴而愜心 聞蟬聲而醒耳●  
 樂吾之樂 而與物同 蓋默通乎至理● 今子本身而異物 滯根而厭塵●  
 不知夫天籟之均寓 通塞之同源● 必欲殄天物而逞吾志 無乃蔽於理而傷於仁●者也  
 抑且翫細娛而遺大患● 除小惱而恬巨害●  
 徒知惡蛙鳴之門市-吾耳 不念夫大蛙大-同-之爲可惡之大●者  
 類之不充 何其昧●耶

言未卒 默所子矍然意下 形慙神痴● 嗒然無語 穆然深思●

압운에 다소의 유동성이 있지만 불규칙하게나마 상당히 세련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압운이 불규칙한 곳도 대화체를 이용한 서사적 내용 전개에서 따온 것으로 문제 삼을 缺韻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사부의 散文化 추세라고 하겠는데 그 문학적 변모의 추세로 인정한다면 여기에서 押韻이 느슨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字句도 四六句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어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다소 불균형이기는 하지만 客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본문이고, 客의 말이 끝나고 나서부터 결말로 구분이 가능한 3단 구성도 갖추고 있어 辭賦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 작품은 작자의 대리 인물인 默所子와 지나는 客이 나누는 대화체의 구조로 작품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 물론 客도, 木소자도 작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詩에서는 이러한 경우 통상 서정적 자아 한 목소리로 진술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問答體의 수사를 사용하는 사부에서는 이와 같은 대화의 진술방식을 택함으

로 해서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이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대화체에 불과하지만 漢文學에서 辭賦 이전에는 예술적 글에는 이러한 문답 형식이 흔치 않으니, 문답체는 사부를 특징짓는 주요한 수사 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 문답체는 辭賦에서 성숙하고, 동시에 사부는 문답체의 수사기교를 성숙시켰다는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작품에서 흔히 보는 수사의 수단은 假託이다. 목소자와 객은 작자를 대신하는 가공의 인물이니 우선 假託된 화자이다. 默所子和 客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작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재인 개구리는 단순한 자연의 대상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자가 겪어야 하는 일체의 世界我를 가탁한 상징물이다. 객이 제시하는 가치관은 개구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아와 충돌하는 일체의 대상물에 대하여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는 요구인 것이다. 침묵하는 장면은 그러한 가치관에 대한 수용이요, 내면적인 다짐이요, 이것이 바로 修身行爲의 과정이다. 이것이 사부에서 즐겨 사용하는 가탁의 수단이다.

이러한 가탁은 내면적인 수신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만약 수신의 행위로 끝난다면 유가 사대부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대부는 수신을 거쳐서 化俗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작자는 자신에 대한 다짐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교훈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의식을 辭賦로 형상화한 것이다.

#### 4. 鷓鴣得腐鼠嚇鸕鷀賦

鷓鴣之屬 厥有鷓鴣● 攫拏而食 盤天而嬉●  
謝雕類之直上 混烏鴉以委蛇● 耽尸陔<sup>28)</sup>之棄肉 掠溝渠之殘馘● .

於焉有得 惟鼠之腐● 虫蛆所蝕 蠅蚋所聚●  
爛皮帶毛 臭腸滿肚● 啣之而飛 致于其所●

28) 尸陔. 시체를 버리는 곳.

遂欣然自語曰 我雖有爪 不利於殺● 我雖有喙 不利於決●  
 窟兔之狡 我不能搏● 澤雉之悍 我不能攫●  
 徒自勤於戾天 諒無救於朝飢● 固一飽之有數 今何幸而獲斯●  
 彼擊鵬之神鷹 與啣龍之金鳩<sup>29)</sup>● 雖自誇其雄快 吾又無心於羨伊●  
 甘哉鼠乎 爾膏爾脂●  
 於是乎有鳥至止 燦燦羽毛● 色備五采 祥開九苞●  
 是謂鸞鷟 鳳凰之曹● 竦翮而逝 引吭而號●  
 鷗乃見之 載驚載疑● 是何鳥也 魁然其儀●  
 得無朵頤於我鼠 將欲奪而取之● 顧我亦有夫鶻距 又安能甘爲爾雌●  
 張其羽翼 奮其頭角● 怒目疾視 呀然而嚇●  
 殊不知鸞鷟生於昆丘之阿 長於丹山之穴● 遨遊乎寥廓之上 棲息乎清虛之域●  
 青鸞朱鳳兮爲其儔侶 黃鵠白鶴兮是其奴僕● 含元和而內充 沐沆瀣以外澤●  
 朝食琅玕之實 夕飲醴泉之液● 雖有八簋之薦 九牢之具●  
 舉以咸英 侑以韶濩咸池<sup>30)</sup>\* 類爰居之<sup>31)</sup>眩視 曾不爲之一顧●  
 矧伊腐鼠 何物穢惡● 遭此橫逆 非意所及●  
 爰矯翼以增舉 獨懷慘而銜慝●  
 希有鳥過之而謂曰 嗟來鸞鷟 吾將語汝● 物之榮辱 係其所處●  
 相彼滄浪 清濁自取● 爾之生矣 于彼仙區●  
 氛濁不到 清淨是都● 汝若乘氣而遊 擇地而趨●  
 高飛兮遠集 與仙靈兮爲徒● 彼鷗之嚇 惡得加諸●  
 今汝行乎 烟火之墟● 入乎垢污之宅 隨燕雀而周旋\*  
 冒塵埃而出入 彼鷗視之● 猶其匹敵 疑汝之分其所嗜●  
 恐汝之奪其所欲 猜防之至● 其勢則然 汝實取之 彼何過焉●  
 往者莫追 來今慎旃●  
  
 鸞鷟聞之 怒然自恫● 一舉千里 海闊天空●  
 而鷗也食鼠而飽 傲然自得乎藩牆之間糞壤之中●

四六體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字句를 구사하여 형식의 단조로움을 벗

29) 金鳩. 龍을 잡아먹는다는 전설상의 새.

30) 咸池는 皇帝, 六英은 帝學. 韶는 舜. 濩는 湯의 音樂曲名.

31) 爰居. 전설상의 海鳥名.

어나 있다. 변화 있는 字句와 뚜렷한 서사형식임에도 두 군대를 빼고는 압운에 매우 충실하고 있다. 보다시피 3단 구성도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사부의 형식을 완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단순한 동물 가탁이기에 이전에 『莊子』, 「秋水篇」에 나오는 우화를 패러디한 것이다. 유명한 典故이니만큼 따로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겠고, 이 작품은 그 우화에 살을 붙인 것이다. 鷓는 小人, 鷓雛는 君子를 가탁한 寓言이다. 탐욕에 눈이 어두운 올빼미의 행동을 묘사한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소인 모리배들의 악행을 이렇게 실감나게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사부문학의 기능을 한껏 높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인들이 들끓는 세상에서 참된 선비와 義人들은 설 자리가 없어 숨을 수 밖에 없다는 사건의 설정도 세태를 고발하는 사부의 풍자적 기능의 발휘이다. 소인배들이 욕심내는 모든 것들이 한날 썩은 쥐고기에 불과하다는 독설은 작자의 높은 정신세계를 자임하는 사부 특유의 과장이다. 원래의 寓話を 典故로 활용하여 이를 더욱 해학적으로 戲畫化한 장면묘사가 흥미롭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두 가지로 파악된다. 하나는 올빼미와 같은 천박스럽고 저속한 소인들에 대한 비판이다. 작품의 대부분이 이러한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최악은 자신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할 君子를 이 사회에서 쫓아내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두 번째 주제의식이다. 그렇다면 작자는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鷓雛는 올빼미를 더이상 상대하지 않고 멀리 날아가 버리고, 올빼미는 제가 鷓雛를 쫓아낸 승리자인 줄 알고 쥐고기를 배불리 먹고서 두엄 자리에서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해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소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결국 군자는 소인에 쫓겨 세상에서 숨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시덥잖은 소인들을 가르치려하거나, 아귀다툼을 하느니 차라리 현실을 초월하자는 것이니 이것이 작자가 제시한 세상 사는 방법이다. 莊子의 寓話대로 한다면

세상을 초월하자는 도가적 인생관이 주제가 될 것이니 이는 修身의 방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인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뜻을 강조하면 教훈이나 戒世의 辭賦가 될 것이다. 어쨌든 이 작품도 매우 뛰어난 가탁이요, 풍자 수단을 과시한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 Ⅲ. 頌祝

頌祝은 사부의 중요한 문학적 기능 중의 하나이다. 辭賦의 송축성이란 귀족 문학에서 나온 官邊文學의 소산이기도 하다. 당대의 통치 이념은 儒家 思想이었고, 科擧의 試題 또한 儒家的 統治術을 요구하였으며, 試官 역시 유학자였으니, 적어도 급제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儒家的 內容에 충실했어야 함은 물론, 그것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 불가했던 것이다. 위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조하고, 君主를 송축하고, 王業을 기리며, 儒道를 찬양해야 했다. 실제로 조선 전기 詞章派와 道學派가 대립했을 때에 사장파의 대의명분은 外交使令과 함께 바로 이러한 송축의 기능이었다. 사대부는 모름지기 항상 군자의 품위를 닦고, 儒家 성현을 본받아 修身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성인이 나면 하늘도 이에 감응하여 吉兆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自然, 季節의 변화 하나 하나가 그들의 눈에는 범상히 보이지 않았고, 그것을 교묘히 원용하여 儒家 이념과 연결시키고, 王業에 대한 하늘의 啓示로 승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된 과업이었다. 설사 과거의 王業이나 先祖의 史蹟이 내세울 만한 것이 못되더라도 그것을 儒家的 도리로 합리화, 정당화시킬 수 있는 阿世의 재주를 가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문학이 또한 辭賦였다. 사특한 內容을 담아서도 안 되고, 점잖지 못한 일을 거론해서도 안 되고, 道心을 떠나서 하찮은 감상에 빠져서도 안되며, 儒道에 어긋나면 곧 斯文亂賊이 된다. 辭賦 자신이 館閣文學인 만큼 頌祝의 기능이 매우 커서, 그 需要도 많아 많은 송축의 작품

을 거느리고 있다.

張維도 4편의 頌祝 사부를 남겼다. 그러나 그 송축의 대상이 雪, 氷, 雷 등과 같은 자연물이어서 頌祝辭賦의 천박성이나 아첨성의 혐의가 훨씬 덜하다. 자연 대상물을 송축하는 행위를 통해서 유가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나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송축사부와는 그 격이 다르다. 다만 「弔箕子賦次姜嫄修韻」은 기자와 중국사신을 찬양하고 아첨한 것이어서 품격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것도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서였다면 그나마 명분은 서는 일이다.

### 1. 雪賦 課作

何滕六<sup>32)</sup>之多技 紛獨賦此奇質● 形融洽以隨化 色皎潔而可悅●  
稟玄陰而不汚 乘凝閉以流澤● 振歲功於已成 膏萬根於既復●  
信功用之孔盛 奚貌態之徒媚●

遡玄機之回薄 察時行之攸始● 方窮冬之栗烈 屬天地之睽隔●  
健上騰而不垂 順下降而愈卜● 氣閉塞而莫交 陽潛蟄而陰頑●  
源泉涸而絕流 煖谷凜而生寒● 坎有澤而不行 爰凝結而爲雪●  
蓄同雲以自釀 驅微霰而先泄● 氣慘淡而日曠 天窈黝而晝冥●  
騰河海之凜色 動林壑之寒聲● 乍徘徊以飛灑 俄翕習而交集●  
始浮散而彌漫 忽明滅其糅選● 隨疎密於雲氣 任疾徐於風力●  
似殊勢而同聚 若先離而後合● 冒庭廡以委積 穿簾戶以飄飄●  
飾千峰之岳山敖 柱萬林之幹條● 連原隰以一皓 掩江漢而同白●  
亮化工之弄巧 幻世界於頃刻● 目疑遊於瑤圃 身若寓乎玉界●  
驚兮質之已變 幸圓象之無改● 挹無邊之清景 緬往事而長想●  
穆倦遊於哀歌<sup>33)</sup> 鄂寓名於佳唱<sup>34)</sup> 欽貞操於朔宥<sup>35)</sup> 慕幽興於山陰<sup>36)</sup>

32) 滕六은 雪神.

33) 周穆王이 巡狩 중에 일어 죽은 백성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34) 楚 宋玉이 白雪曲을 지어 불렀다. 곡이 어려워 和唱하는 이가 적었다고 한다.

壯懸瓠之樹績<sup>37)</sup> 悴灞橋之行吟<sup>38)</sup> 歎衛詩之愁慘 賞梁園之娛樂<sup>39)</sup>

雪無心以皓然 人隨地而異跡<sup>40)</sup> 惟乾道之變化 運兩儀以錯行<sup>41)</sup>  
 嗟雨露而發養 結霜雪以堅成<sup>42)</sup> 誰舒慘之異侯 固一氣而相須<sup>43)</sup>  
 散往謀以冥搜 考休咎之徵符<sup>44)</sup> 表陰沴於袤丈 呈豐瑞於盈尺<sup>45)</sup>  
 際千齡之昌運 游嘉祥於三白<sup>46)</sup> 忻遺螟之入地 占麥秋之鼓腹<sup>47)</sup>  
 竭荒陋以陳頌 愧授簡之才薄<sup>48)</sup>

6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句型은 당대의 科體辭賦에서 많이 쓰이던 것이다. 제목에서 ‘課作’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있어 자의에 의한 순수한 창작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6言字句는 가장 경직된 사부의 자구 형식이다. 압운도 隔句마다 규칙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도 당대의 의도적인 ‘課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표지는 없으나 내용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信功用之孔盛 奚貌態之徒媚 [그 공로가 큰 것도 경탄할 일이거나 생김새마저 아름다운가?]’까지가 눈의 일반적인 속성을 소개한 장면으로 머리로 볼 수 있고, 다음부터 눈에 대한 정밀묘사를 통하여 눈을 찬양하는 본문, ‘雪無心以皓然 人隨地而異跡’은 무심히 하얗건만 사람마다 그 행적이 다르구나.’에서부터 인간이 눈을 대하는 자세를 제시하는 결말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사부의 3단 구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선대 문인들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이입시켜 형상화시킴으로써 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자연과 交融할 수 있었고, 그 자연 속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

35) 漢 蘇武가 흉노에 잡혔으나 눈과 털을 씹으면서 지조를 꺾지 않았다고 한다.

36) 王徽之가 설경에 취하여 벗을 찾았다가 흥이 다하니 그냥 중도에서 돌아왔다.

37) 唐將 李愬가 눈 오는 현호성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실을 말한다.

38) 孟浩然이 눈 오는 패교에서 설경을 읊었다.

39) 漢宮에서 梁효왕이 문사들을 모으고 주연을 베풀었을 때에 눈이 왔다고 한다.

40) 동지와 낱알 사이에 세 번 눈이 오면 大吉兆라 한다.

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자연대상을 소재로 하여 지어진 사부를 ‘詠物辭賦’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상을 집중적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하여 사부의 敷衍, 誇張 등의 수사 수단과 맞물려 많은 작품을 남겼다. 雪은 그 자연물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는 소재로 사부문학에서도 자주 소재로 사용되었다.

우리의 사대부들은 이러한 대상 소재들에 자신들의 인위적인 가치관을 투영시켜 거기에 일정한 도덕과 윤리의식을 부여하기 좋아했다. 여기에서도 눈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역사에 작용했던 일들을 들어가며 눈의 덕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유가의 도덕률과 밀접하게 관련시키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자연물은 본래의 모습과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꾸며지고 변질된 형태로 작품에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이념적 성향은 사부의 문학적 形象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자연물에 이데올로기를 무리하게 주입시켜 매우 부자연스러운 辭賦를 짓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폐단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여 어느 정도의 문학적 품위가 있어 보인다. 작품의 많은 부분이 이념의 선전보다는 자연의 눈을 심미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많다. 그러나 눈 내리는 자연현상을 治世의 功過나 徵候에 연결시키는 마지막 장면에서 어쩔 수 없는 儒家 사대부의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2. 氷賦

天生五材 變化難推● 金燦則流 木熱而灰●  
 曰惟茲氷 至陰所凝\* 水之自出 而變其質\*  
 自虛而實 化柔爲剛● 乾坎之象 著于義經●  
 外化內貞 君子之德● 時凝時釋 達者之則●  
 處汚不染 貞士以之● 融形返本 至人似之●  
 德全功備 利用斯博● 聖人取之 以贊化育●  
 時藏時發 有室有官● 祭而共鑑 喪而設槃●

二氣以調 萬物以濟● 夏造惟幻 冬無爲沴●  
 易戒履霜 詩配臨深●<sup>41)</sup>謹微早辨 涉危操心●  
 葉公<sup>42)</sup>受命 以濯內熱● 王霸<sup>43)</sup>詭對 果符天鷲●  
 楊山<sup>44)</sup>難倚 夏虫足嗤● 壺月<sup>45)</sup>高風 吾願同歸●

4言 字句를 계속해서 구사하여 경직된 느낌이다. 隔句押韻이라면 두 군데에서 缺韻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작품에서 결운을 두 군데나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압운은 규칙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구성도 3단으로 볼 만한 마디를 찾기 어렵다. 결국 사부의 형식적 요소를 제대로 갖춘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앞서의 雪賦가 科體사부라서 구성이나 압운이 비교적 整齊性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이 보이는 허약한 형식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이라는 데에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정밀묘사의 대상이 된 자연물은 얼음이다. 얼음도 눈과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자주 사부의 소재로 등장한다. 중국이나 우리 문인들 작품 중에 여러 편의 氷賦가 있는데 대개는 그 주제의식이 비슷하다. 이 작품의 형식 내용이나 길이로 보아서 그리 높이 평가할 氷賦는 아닌 성싶다. 형식은 앞에서 본 것 같이 다소 허점이 보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얼음에 지나치게 이념을 투입하여 얼음만큼이나 차가운 작품이 되었다. 이래서는 문학이 ‘이념의 시녀’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이 작품은 목적성이 강하다. ‘壺月高風 吾願同歸[호월의 높은 기개를 본받고자 하노라]’라고 한 마지막 구절에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

41) 『周易』, <乾卦>, “履霜堅氷至”; 『詩經』, 「小旻」, “如臨深淵 如履薄氷”

42) 葉公子高. 楚人. 齊의 사신으로 가는 것을 근심하여 속이 타 얼음물을 마셨다고 한다. 短身에 교만하여 공을 참칭하고, 小利를 탐하고 허세를 좋아하여 징벌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43) 王霸. 後漢 光武帝의 장수. 군사를 진격시키기 위해 강물이 얼었다고 속였는데 가보니 실제로 얼어있었다고 한다.

44) 唐의 權臣 楊國忠을 氷山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녹아 없어질 허세라는 뜻.

45) 宋 學者 李侗을 인품이 고결하다 하여 氷壺秋月이라 칭찬했다고 한다.

이 확인되고 있다. 겉으로는 얼음을 찬양하면서 작품의 참된 의도는 얼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 儒家 君子道를 찬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사물에 이념을 투영시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사부에서 흔히 쓰이는 假託의 수법이다.

### 3. 雷賦 課作

巍巍大鈞 官府天地● 低昂六極 闔闢二氣●  
 棟萬化於掌握 鼓生成之美利● 吹噓而寒燠變 噫呵而風雲起●  
 彼闔闢之轟震 誰淫樂而勸是● 緬威靈以興感 聊玄覽乎時義●

粵若玄冬閉塞 二儀不逮● 騰氣下墜 垂精上收●  
 剛陽潛蟄 九地深幽● 類伏火之未然 戢烈燄於寒灰●  
 七日之復 冥關乍開● 四陽之月 機緘始壯●  
 攄蓄怒而奮迅 劃頑陰以振盪● 發自地軸 轉于天衢\*  
 此則雷之行藏也  
 氣機一動 物隨以舒\* 驚群蟄以破壞 暢潛蛰而甲坼●  
 挾烈缺以成勢 贊雨師而修職● 生而長而 鼓之舞之●  
 餘威所及 百邪離披● 磔乖龍於重淵 穢妖魅於陰窟●  
 犯其燄者莫不焦爛 觸其鋒者皆爲靡滅● 太山之大 殺爲微塵\*  
 金鐵之剛 融爲漚沫●  
 此則雷之功用也  
 行不測之威怒 寓無形之賞罰● 衛正扶善 懲邪戒惡●  
 暴君慢天 命隕從獸● 姦黨誣正 碑轟元祐●<sup>46)</sup>  
 鑑匹婦之啣冤 齊臺隕傾●<sup>47)</sup> 謹威竪之專橫 漢寢震驚●  
 遂使頑嚚破膽 亂賊屏氣● 鬱抑者知所籲懇 強梁者不敢恣肆●  
 雖未必物物遍及 亦可使人人自懼● 惡念旣懲 善端漸露●  
 此則雷之威神也

46) 元祐碑. 宋 王安石이 新法에 반대하는 자를 고발한 비석.  
 47) 齊나라 孝婦인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써 그 원한이 사무치니 齊王 누각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한다.

若乃阿香推轂 謝仙揚炬<sup>48)</sup> 神斤斲輪 鬼手撻鼓●  
 銅斧石楔之異 火旛紛篆之屬● 雖茫昧而不經 亦流傳於載籍●  
 蓋神化之無窮 故靈怪之難測● 吾觀夫鴻鑪橐籥 造化多方●  
 有正有邪 有變有常● 彼風雨之流行 與霜雪之凝洿●  
 物賴之以生成 均至教之攸寓● 於德爲常 於氣爲正●  
 去一於斯 歲功其病● 霧昏雹暴 虹蜺淫僻●  
 蒙迷太清 天闕萬族● 引凶召亂 爲沴爲咎●  
 蓋彼固不可或無● 而此固不可或有者也  
 若雷者天地之威怒 陰陽之奮激● 四時從其開闔 萬物隨而出入●  
 恩威兼濟 殺活竝行● 聞其聲者栗然戒懼\*  
 感其氣者蠢然發生● 功用之大 神靈之盛●  
 王者之所崇祀 聖人之所嚴敬● 豈不偉哉  
 若夫愆時喪節 褻威損物● 冬或洩氣 春靡振蟄●  
 迺人事之感召 豈神功之舛忒● 宜后辟之觀省 勳警闕而飾德●  
 施雄斷以制事 戒暴怒而蓄威● 則天人之道合而位育之化熙●矣 不亦休哉

系曰泰初之依柱勇矣而失之傲\*<sup>49)</sup> 玄德之失箸譎矣而疑於怯\*<sup>50)</sup>  
 傲則非夫子必變之敬心\* 怯則無大易執鬯之定力●  
 法其疾而取遷善改過之益● 戒其同而免徇人苟合之譏●  
 噫微斯人 吾誰與歸●

字句는 여러 가지 형식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3단 구성도 비교적 분명하게 가를 수 있어 구조의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말은 ‘系曰’이란 亂詞를 標識하여 구분하고 있고, 본문의 첫구에도 ‘輿’라는 감탄사를 장치하여 머리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압운에 있어서는 비교적 불규칙하게 되어있고 缺韻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특히 압운에 철저하기 마련인 ‘系曰’ 이하에서 세 개의 결운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48) 阿香은 우레의 별명. 謝仙은 雷神.

49) 泰初는 魏將 夏侯玄의 字. 천둥 벼락이 쳤는데도 태연히 기둥에 기대어 글씨 쓰기를 계속했다.

50) 劉備가 雷聲에 놀라 수저를 떨어뜨리는 적했다.

드문 경우이다. 제목에 ‘課作’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科體사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처럼 압운 규칙의 허술함을 노출시키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서 마땅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작품도 자연대상물인 ‘우레’를 정밀묘사로 찬송한 것이다. 우레의 첫번째 덕은 처세의 ‘行藏’을 가려 하는 데에 있다. 위력이 있다하여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올 때를 보아 필요할 시기에 맞춰 마땅히 할 일만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레의 두번째 ‘功用’은 만물을 소생 성장케 하고, 사악한 무리를 가차 없이 처단하여 질서를 세우는 데에 있다. 우레의 ‘威力’은 세상의 죄악과 부조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응징을 하는 데에 있다. 우레의 강력하고 가공할 파괴력과 소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위력을 찬양한 것이다. 이러한 우레의 덕이 없다면 천지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인류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부에서 늘 그러했듯이 여기에서도 단순한 자연물의 찬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레에는 작자의 이데올로기가 이입되어 있다. 우레의 덕에 대해서 ‘왕이 숭상하는 바요, 성인이 공경하는 바이니 어찌 위대하지 않으리오? [王者之所崇祀 聖人之所嚴敬] ● 豈不偉哉!’라고 칭송한 것은 그러한 작자의 의도가 드러난 장면이다. 그리고 만사 성패의 관건은 자연대상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 있다는 것을 ‘만약 때와 계절을 어기면 위세와 사물이 손상을 입으니…이것이 사람의 탓이지 어찌 신의 잘못이라? [酒人事之感召 豈神功之舛忒]’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우레에 대한 칭송과 일체의 기대는 결국 인간 스스로에 있는 것이다. 작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레와 같은 인간에 대한 찬양이요, 그러한 인간에 대한 기대요, 그러한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이요, 다짐이다. ‘마땅히 물러나와 반성하고 삼가 덕을 닦아야 함이라. [宜后辟之觀省 勳警闕而飾德]’, ‘이것이 하늘과 사람이 화합하는 것이며 본분을 지켜 교화하는 것이다. [則天人之道合而位育之化熙]’, ‘우레의 빠름을 보고 개과천선을 늦추지 말고, 부화뇌동을 경계하며 구설수에 오르지 말라. [法其疾而取遷善改過之益 戒其同而免徇人苟合之譏]’에서 작자의 이러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결국 우레의 덕을 칭송하는 행위를 통하여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간에 대한 찬양과 그러한 위력을 갖추기 위한 수양을 다짐하는 데에 주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인간이 세상에 출현하여 이 사회를 바로잡을 것을 기대하는 작자의 소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인간상은 작자가 스스로 성취하기를 다짐하는 목표일 수도 있다.

#### 4. 弔箕子賦次姜編修韻 并序

屈宋之後世無騷 班張之後世無賦 明興李何諸子 迺始彬彬振古 而閎衍巨麗之體 猶未大備 至盧次梗王元美出而後 騷賦頓復舊觀 不佞嘗讀而豔之 竊意中華之大 必有繼而作者 顧海外僻遠 未之聞也 茲者伏蒙正使大人 出示弔箕子賦一篇 無論詞之醇篤 足以闡仁聖之微意 其寄文奧語 錯落臚列 雖王盧復作 殆欲瞠乎下風 吁亦壯矣 不佞款啓寡聞 才具凡近 不足以追攀步驟 顧唱酬之禮 不敢闕焉 謹依韻和呈以請近教 撫掌之笑 有不敢避 其辭曰

藐台濩落于寘中兮 悵介特而無侶● 緬往喆之逸軌兮 思矯翼而偕舉●  
 歷九州而想其人兮 羞余肴兮醜余醕● 慨絕響之久湮兮 誰哉倡余而和女●  
 經沮陽之舊墟兮 竊慕元聖之遺緒● 陟降之不可知兮 參帝居兮共天語●  
 宇宙既均式于大法兮 矧茲夫子之攸處● 溯流風之眇邈兮 中鬱曲而齟齬●  
 昔夫子信修而服義兮 秉烈祖之淵心● 集芳潔以紉佩兮 操道術而爲之琛●  
 欲薦美于宗祊兮 顧獨遭世之昏淫● 皇天之不純命兮 獨夫不改其梟音●  
 背周道之孔夷兮 遵九折之崎嶇● 芟蘭蕙以蘊崇兮 植叢棘之林林●  
 天乙之克享天兮 帝眷命之日深● 繼賢聖之六七兮 而商祚式至于今●  
 鑑非遠而在夏兮胡今 人之莫之艾● 妹也之爲妖爲蠱兮 曾不寤茲之凶害●  
 輪摧而輿仆兮 覆樂出乎是途● 既無戒於顛越兮 又冥行而疾驅●  
 脯爲林而酒爲池兮 千人飲而萬人呼● 咨親懿與格人兮 舉痲心而殷卜于●  
 謨言之孔訃兮 君反以爲怪誣● 彼少師之法語兮 夫豈罔念乎嬰誅●  
 哀邦命之綴綴兮 譬頽晷之迫桑榆● 豈余窮之足卹兮 君庶過乎自虞●  
 王子之出迪兮 謏余詔之中孚● 相顛木之有蘖兮 無寧愈勝乎萎枯●  
 喟余心之眷眷兮 將舍此而焉徂● 天既集命于西隣兮 日觀兵以東闕●

夫孰遠薰而即蕕兮 況吐飴而茹荼● 膏盲之不可爲兮 又何賴於俞盧<sup>51)</sup>  
 余寧蒙難而降志兮 甘自淪於卑汚● 獨泯默而沉痛兮 背膺畔若比干辜●  
 衆蚩蚩而朋淫兮 疇復察余之危苦● 屬明神以聽直兮 指皇天與后土●  
 諒天廢之不可支兮 聊以自獻于吾祖● 仁人胥以流亡兮 余有志其誰輔●  
 函糞土而不辭兮 孰清激其否臧● 固臣罪之當戮兮 寧止乎臣下之不匡●  
 歎西師之愈河兮 哀殷命之不长● 彼膚敏之濟濟兮 爭祿將于新王●  
 顧余忱之不可化兮 恒耿著乎衷腸● 食薇之太隘兮 所不忍乎牽羊●  
 唯九疇之大範兮 道無間於禹湯● 膺斯民於萬代兮 匪余獨詔于周邦●  
 聊申申以敷告兮 寤身抑而道揚● 並彖繇以表裡兮 予蓋言之已詳●  
 閔彝倫而密若兮 天其以予爲不祥● 西伯既已沒兮 世無人其我知●  
 鷹揚之非我伍兮 玉馬又非余所期● 瞻四海以覽蹙兮 獨鬱邑而安之●  
 眷東表之有土兮 非職方之攸尸● 余既有成言於王子兮 詎今日而狐疑●  
 喆人之遂志兮 夫豈一概乎趨捨● 知不可以我繫兮 孰此行之可已●  
 遐哉東海之洋洋兮 戒余轄以卽路● 夷之陋尙可居兮 信吾德之貞固●  
 布八條之優優兮 漸摩以哲王之軌道● 氓欣欣於振德兮 載色笑而匪怒●  
 混殊俗以塊處兮 嗟余行之踽踽● 商丘邈其離絕兮 干與梅<sup>52)</sup>兮鬼爲伍●  
 悵殷墟之麥秀兮 獨忍淚而增傷● 諒天命之有廢興兮 又何恨狡童之披猖●  
 東民之函聖化兮 易介鱗以衣裳● 飢忠信而服禮義兮 遵正路而徜徉●  
 啓我蒙而導我迷兮 又能已我之癡狂● 滌羶而辟蠱兮 爰熏襲乎芬芳●  
 去檜巢與穴窟兮 俾我寧處乎堂房● 君師而父母兮 澤遠而道光●  
 距今茲幾千祀兮 儼祠廟之孔陽● 瞻墓門之松栢兮 豈蕘牧之或戕●  
 綿血食於海外兮 足以逆續乎殷商● 唉人世之迫隘兮 竟同歸於枯骸●  
 本非榮於尊賢兮 又奚辱於牢廂● 夫惟致命而善道兮 羌志士之攸求●  
 湯文之明德兮 尙不免乎幽囚● 士有志而直遂兮 涂有轍而共由●  
 求仁得仁而何怨兮 樂天命而不憂● 讀明夷而諷軼詩兮<sup>53)</sup> 渙余涕之橫流●  
 天既奪鑑於頑嚚兮 彼廉來<sup>54)</sup>又何尤● 有翰林之主人兮 粉獨慕此媵修●  
 鳴謨韶<sup>55)</sup>之要眇兮 息淫蛙之嘲啁● 汎詞源而沿泝兮 窮藝圃以督蹂●

51) 盧의 名醫 俞跗.

52) 比干. 梅伯. 殷의 충신. 紂에게 간하다가 죽임을 당함.

53) 明夷는 周易의 卦名. 暗君을 상징함. 軼詩는 麥秀歌.

54) 飛廉과 惡來. 紂의 惡臣.

55) 謨은 帝嚳의 樂曲, 韶는 舜의 樂曲名.

啣帝命而使東藩兮 憇玉節之轟轟● 訪遺風於故都兮 感天道之培覆●  
 姬何爲而篤祐兮 子何爲而降戮●<sup>56)</sup> 顧仁聖之秉義兮 矢靡誣於臣僕●  
 生旣不憚於狴狴兮 沒亦匪願乎汗竹● 甘埋聲而穢跡兮 長自屏於荒服●<sup>57)</sup> .  
 道不窮於喪亡兮 志愈貞於危蹙● 擗昌辭而弔古兮 撫千載猶隔宿●  
 夫子之神儼若在今兮 洋洋乎上下與四方● 左微干而右墨台兮<sup>58)</sup> 聊相於兮不永傷●  
 安得乘雲而御風兮 出入荒兮窮眇茫● 肅群聖之精靈兮 訪三統之興亡●  
 樂浪之山兮峙巖巖 樂浪之水兮流洸洸● 莽蒼兮丘井之墟 嶧嶧兮衣冠之藏●  
 士不媿於絃誦兮 氓樂業於耕桑● 聖人之化與天通兮 諒彌久而彌章●  
 湯武兮同一聖 殷周兮同一王● 蒸民兮同一性 四海兮同一鄉●  
 三代之所以直道兮 知與能兮皆良● 縱敝邦之處僻兮 豈民德之或涼●  
 願君子之莫我違兮 毋遽趣乎歸裝● 仰聖範而極研兮 延俊髦以徊翔●  
 杼雲夢之巨麗兮 騰茂實於詞場● 鋪張華夏之文明兮 永衣被於偏荒●  
 挹鴻藻而三復兮 覩光色之淵蒼● 擬蕙華而竝美兮 長榮苑於都房●

亂曰握瑜兮懷瑾 天方蹶兮謂何● 靡君兮不可昭 雖願忠兮可那●  
 隳余節兮辱余身 心斷斷兮無他● 離離兮禾黍 鬱鬱兮邦畿●  
 違故國兮適殊方 魂有招兮無歸● 毫社兮旣亡 宗周滅兮疇依●  
 耿此心兮獨不死 千秋萬歲兮無是非●

張維의 사부 중에서 가장 큰 대작으로서 본격적인 사부의 典型을 갖춘 작품이라 할 만하다. 형식적인 면에서 并序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작품의 머리 구실을 하고 있고, ‘亂曰’이라는 亂詞로써 결말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3단 구성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장편임에도 缺韻 한 곳 없이 압운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次韻한 것이니 원작의 압운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字句 형식은 전형적인 楚辭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頌祝의 사부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

56) 姬는 周의 宗室. 子는 殷의 宗室.

57) 荒服은 偏僻地.

58) 微는 微子. 干은 比干. 墨台는 伯夷叔齊.

다. 다른 송축의 사부가 대개 자연 사물을 가탁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한 반면에 이 작품은 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면전에서 찬송하는 것이니 그 수단이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며 의도적인 외교수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并序에서부터 강대국의 외교사절인 상대방을 屈原, 宋玉 이후의 최대 사부작가로 칭송하고 시작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다. 평소 고대하여 마지않던 중국의 辭賦大家를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당대 중국의 문단을 평정한 王世貞도 따르지 못할 경지라 했으니 송축이 지나치다. 서문 뿐 아니라 본문 곳곳에 이러한 장면이 널려 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송축, 찬양의 정도를 넘어서 지독한 아첨, 아부이다. 그러나 찬양의 대상이 중국의 사신인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아부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公人으로서 지어진 외교적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아첨성 송축의 사부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송축의 사부에서 흔히 쓰이던 假託, 寓言의 수단이 필요 없이 직설적이다. 목적이 분명했기에 대상에 이념의 투영도 없고, 비유적인 교훈이나 수신의 다짐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작품 내용의 대부분을 箕子의 업적을 기리는 것에 할애하였다. 姜緇修라는 인물에 대한 찬양이 외적인 주제라면 箕子에 대한 찬양은 내적인 주제의식이다. 기자의 가장 큰 덕은 충절이다. 폭군인 紂를 포기하지 않고 社稷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간하기를 마지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칭송을 받아야 할 것은 자신이 지켜내려는 사직이 곧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인이 될 신흥강국인 周에 충정을 주지 않은 점이다. ‘내 어찌 시련에 닳쳤다 하여 지조를 꺾고 스스로 더러움에 빠지겠는가[余寧蒙難而降志兮 甘自淪於卑汚]’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유가 사대부의 덕목인 不事二君의 정신인 것이다. 만약 기자가 새로운 왕조인 周에 충성을 바쳤다면 東夷로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혜택과 은혜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누추한 東夷도 살만하여 곧고 바른 나의 덕을 펼치리로다.[夷之陋尚可居兮 信吾德之貞

固]’라고 하면서 箕子가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다. 작자로서는 이 점이 더욱 기자를 찬양하고 고마워해야 할 이유였다. ‘외국에서 기림을 이어 받으니 殷나라 이곳에 이어졌네.[綿血食於海外兮 足以迓續乎殷商]’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점을 칭송한 것이다. 그리고 기자의 이 不事二君의 정신은 옛날 중국의 한 성현의 도덕률에서 그치지 않고,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간 當代의 조선왕조의 국가적 윤리로 이어져 왔음에 感泣하고 있다. 이 작품이 지어진 것은 인조 4년이니 1627년이다. 이때는 조선이 대국으로 삼았던 명나라가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요, 신흥강국인 後金이 中原을 호령하기 시작할 때이다. 이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밝았다면 지금껏 明의 사신을 天使라고 불러가며 이러한 외교적인 사부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丙子胡亂이라는 참상을 겪은 조선이 明이 멸망한 지 백 년이 넘도록 세계적 강국인 淸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明의 연호를 고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不事二君이라는 유가의 정신을 지상의 덕목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개인의 덕목을 국가의 대외외교에까지 공공연하게 적용시켰다. 이 작품에서 당대 사대부의 유가적 가치관과 경직된 국가윤리를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이른바 箕子東來說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려 肅宗 때부터 箕子の 廟를 평양에 처음 만들었고, 조선에 들어서 다시 이를 증축하였다. 중국의 사신들은 사절로 오는 길에 평양에 들러 기자묘에 참배하고 우리의 접반사와 교섭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었다. 이 작품은 중국의 사신으로 온 한림원 편수관 姜曰廣이 箕子를 기리는 사부를 지으매, 接伴使였던 장유가 그 작품에 次韻하여 지은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자주 있었던 일종의 외교적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의 사부가 많이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보는 외교적 수단을 꼬집어 작자를 각박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 대국의 사절을 맞이하는 접반사로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일은 외교관으로서 당연한 외교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두 작품에 그치지 않는 이러한 사대외교의

작품들은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적잖은 문제가 된다. 사실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箕子朝鮮을 세웠다는 史實은 중국의 史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아무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기자가 東夷로 갔다고 한 기록은 당시 殷, 周의 중심지인 中原에서 단순히 동쪽으로 갔다는 뜻으로 보아야 옳다. 그것을 우리의 사대주의에 쫓린 史官이나 문인들이 東夷를 우리 민족과 강역으로 간주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古朝鮮, 箕子朝鮮의 강역을 한반도로, 한 술 더 떠 그 도읍지를 평양으로 기록하였다. 敬慕하여 마지않던 대국인 중국을 최대한 우리의 무대로 가까이 끌어들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三國遺事』에서 檀君의 역사를 평양에서 시작한 것으로 기록한 것을 필두로, 이후의 史官, 文人들이 역사의 기록이나 문학작품에서 다루어 이를 史實로 서술함으로 해서 기자의 동래설과 평양의 도읍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檀君에 관한 일까지도 기자의 업적으로 말하고 있다. 근래 중국에서 滿州는 물론 한반도까지 자기들의 역사라고 역지를 펴는 상황에서 우리의 史書나 문학작품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 장면은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기록이나 문학작품들을 찾아 시비를 바로 가려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하는 일이 될 것이다.

#### IV. 呪術

주술은 일종의 神秘主義의 산물로 철저한 현실적 실천철학인 儒家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이질적인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사부의 작가인 유가들이 적지 않은 주술적 사부를 썼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呪術辭賦의 내용을 드러다 보면 신비주의나 超世의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가 특유의 현실적 세계관이 우세하다. 즉 작품에 나타난 주술적 행위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영험한

효과나 기적을 얻어내자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자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대부로서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표현이요,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어야 할 일종의 굴절된 施惠행위요, 啓導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인 계도의 방법까지도 동원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 呪術的 사부이다. 天災地變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역량을 하늘에 호소하기도 하며, 백성을 위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일련의 주술적 장면에서 엘리트로서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인간미를 발견할 수 있다. 張維는 이에 해당하는 작품을 2편 남겼는데 많지 않은 그의 사부작품 중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은 것이다.

### 1. 遡旱文

皇穹蕩蕩運玄樞○兮 紘氤輻輳萬化區○兮  
 五緯<sup>59)</sup>均布六氣<sup>60)</sup>敷○兮 燥潤以時品彙舒○兮  
 厥有不若神所差○兮 維茲之旱職誰尤○兮  
 驕陽亢亢陰不逮○兮 烈氣蘊隆炎火稠○兮  
 如悒如焚灼以薰○兮 草焦木枯勾芽闕○兮  
 源泉滲渴常流絕○兮 湖澤竭揚塵鱗分滅○兮  
 曠野千里土如赭○兮 銚耨莫舉農不播○兮  
 田畷拊膺泣涕瀉○兮 五種不成氓拙餓○兮

嗟后皇兮儼高處○ 棟化機兮覆下土○  
 佑正直兮閔無告○ 氓曷辜兮播茲咎○  
 藐居卑兮問無由○ 願乘雲兮薄往遡\*

59) 五行. 金木水火土.

60) 陰陽風雨晦明

余使祝融<sup>61)</sup>以啓途\*兮 命羲和<sup>62)</sup>而正輿昇天衢之蕩蕩●A兮  
 驚群靈之衙衙扣太微<sup>63)</sup>以願進●B兮 閭闔閉而愁予皇迺揆余之精誠●a兮  
 命帝閭以闢扉踞瑤階以敷衽●b兮 竭余衷而嗽詞曰  
 雨暘之施化兮茲育物之美利● 潤不可使淫滂兮暵不可使亢熾●  
 均厥叙以來備兮庶物以遂● 民安業以樂生兮皇迺享其禮祀●  
 胡今茲之降戾兮澤久闕而不下● 氣蟲蟲而鬱積兮彤雲赭其如火●  
 野蕭條其埃風兮山滌滌而無翠● 嗟農稼之卒瘁兮恐大命之近止●  
 圭璧<sup>64)</sup>卒而靡愛兮愈味味以不悔● 豈皇靈之酷我兮由魑虺之久貸●  
 苟生類之殄滅兮皇雖惠而曷逮● 顧及今而垂澤兮尙予遺之可蘇●  
 勅兩師而修職兮命豐隆而先驅<sup>65)</sup> 戒炎皇以戢威兮執妖魃而顯誅●  
 施靈澍之汪濊兮霈千里於須臾● 瘁者得以興兮槁者得以濡●  
 嘉谷<sup>66)</sup>蕃以日滋兮稂莠盡鋤● 人多稔而多黍兮爭鼓腹以歌謳●  
 菑沴不敢再作兮永終世而康娛●

終余詞以告辭兮涕漣漣而交橫● 登飊車而整轡兮指下土而回旌●  
 百神儼其齊會兮紛總總以導行● 臨箕尾以俯瞰兮雲渺渺兮東瀛●

이 작품은 우선 제목이 ‘文’으로 되어있어 얼핏 사부임을 알아보기 어렵다. 대개는 관습적으로 제목의 끝 자가 -辭, -賦로 되어있는 것을 사부로 생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처럼 제목에 사부임을 표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사부작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부문학을 연구하는 데에 적잖은 문제가 된다. 실제로 제목만을 보고 거기에 ‘辭’나 ‘賦’자가 없을 때 이를 사부문학에서 제외 하였던 사례가 적잖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사부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61) 祝融. 夏神, 火神, 南海神  
 62) 羲和. 해를 신고 달린다는 수레. 日月, 太陽神  
 63) 太微垣. 天帝宮 星座  
 64) 圭璧은 天祭 지낼 때 쓰는 玉.  
 65) 雨師는 雨神. 豐隆은 雷神.  
 66) 谷은 穀의 뜻.

이 작품의 경우를 보면 우선 楚辭體 사부의 字句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은 물론, 철저한 압운을 하고 있어 사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에서 缺韻을 하고 있는데 한 작품에서 몇 개의 缺韻을 하는 것은 사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로 사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A, a와 B, b는 隔句로 교차압운을 하고 있어 압운의 변화를 주고 있는 점도 특이한데 이것은 고도의 의도적인 수단이 라고 생각된다. 글의 구조로 보아서도 사부의 3단 구성을 갖추고 있다. 비록 명시적인 구분 장치는 없지만 처음부터 ‘五種不成岷拙餓兮[은갓 곡식 맺을 수 없으니 백성이 굶주리는구나.]’까지가 가뭄의 현장을 제시한 곳으로 글의 실마리인 서두에 해당한다. 다음부터 ‘菑沴不敢再作兮永終世而康媿[폐농의 재앙 다시 없으면 태평성대 끝이 없으리로소이다]’까지는 하늘에 올라 上帝께 비를 간청하는 내용으로 본문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를 기원하는 大長征을 마친 모습을 보여 주는 곳이 결말로 처리되어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전형적인 사부가 틀림없다. 그러므로 제목에 ‘辭’나 ‘賦’라는 標識의 有無에 의해서 辭賦의 여부를 결정짓는 관행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이 글은 목적, 기능상 비를 기원하는 祈雨文이라는 점에서 주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땅 위의 가뭄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천상의 上帝께 비를 내려 주기를 간청하는 작자의 모습에서 영험을 호소하는 샤먼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비를 간청하는 태도에 있어서 무조건 상제의 권위에 호소한다든지, 귀신을 위협하는 자세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비를 내려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차분히 따져서 호소하는 방식에서 단순한 呪術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신비론이 辭賦에서 볼 수 있는 주술의 특징이다. 결국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귀신의 신통력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했을 때에 하늘이 그에 상응하는 보답으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비를 비는 현실적 유가 사대부는 그러한 신비적 행위로 해서 하늘이 비를 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 이러한 呪術의 원리를 荀子는 이미 다음과 같이 밝혀놓은 바 있다.

祈雨祭를 지낸 뒤에 비가 내리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무 이유가 없다. 기우제를 지내지 않아도 비가 오는 것과 같다. 일식 월식이 있으면 제를 지내고, 가물면 기우제 지내고, 점을 쳐보고 큰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갖추는 뿐이다. 군자는 형식일 뿐인데 백성은 神으로 생각한다. 형식은 吉하지만 神으로 아는 것은 凶하다.<sup>67)</sup>

呪術辭賦의 본질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주술행위는 본래 신비적 효과와 별개의 문제였으므로 祈雨의 행위가 다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은 이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다. 呪術辭賦의 결말은 늘 이렇게 끝나기 마련이다. 작품의 사건진행을 보았을 때 屈原의 「離騷」의 그림자가 상당히 짙게 배어난다. 지상에서 천상의 세계를 떠돌다가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다든지,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넘나드는 幻夢의 세계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그렇다. 천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과정이나 장면도 「離騷」와 닮은 데가 많다. 우리의 사부에 중국사부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 2. 譴越文

玄機橐籥鼓洪鑪○兮 播形肖物散萬殊○兮  
 霑膏涵澤生育敷○兮 曷產兇孽俾毒痛○兮  
 咨爾妖魃孰形爾軀○兮 熱火爲體燄髮膚○兮  
 袒身禿鬣載目盱○兮 憑陵風颯迅走趨○兮  
 超越四海遍八區○兮 煽凶鼓災隨噫噓○兮  
 銅塞天澤絕潤濡○兮 利其枯涸以自腴○兮

67) 『荀子』, 「天論」, “雩而雨何也 曰無何也 猶不雩而雨也 日月飾而救之 天旱而雩 卜筮然後決大事 非以爲得求也 以文之也 故君子以爲文 而百姓以爲神 以爲文則吉 以爲神則凶”

咨爾妖魅曷丁此時○兮 天綱凋瘵放勛咨○兮  
 滔天沃日山岳夷○兮 巢窟沈淪氓流尸○兮  
 盜壤干誅橫支祁○兮<sup>68)</sup> 橐駝形勢忍恩慈○兮  
 爾行乎此孰爾疵○兮 黃流悖瀆瓠子<sup>69)</sup> 隳○兮  
 鉅野<sup>70)</sup>既溢梁楚危○兮 人民蕩析魚鱉馳○兮  
 公卿負薪海內疲○兮 宣房<sup>71)</sup>未塞天子嘻○兮  
 爾行乎此孰爾靡○兮 幽幽庸蜀遂西陲○兮  
 群陰所互陽德微○兮 霧雨淫淫恒不晞○兮  
 蒙迷雨曜歲功虧○兮 狺狺邑犬吠暘曦○兮  
 爾行乎此孰爾違○兮 咨爾妖魅獨殃我氓○兮  
 從時逞惡誰使令○兮 哀哀民命仗芸耕○兮  
 顛望滋澤遂生成○兮 輸供租賦養孤惇○兮  
 曷仇乎爾肆兇簪○兮 熾其虐焰宇宙禎○兮  
 油油之雲澤將行○兮 隳突揮霍散百靈○兮  
 神龍狼狽師伯驚○兮 海濱揚塵曝鯤鯨○兮  
 嗷嗷萬族待煎烹○兮 咨爾妖魅詎追天刑○兮  
 皇上帝聰且明○兮 恤我籲號垂視聽○兮  
 蓐收秉鉞勅六丁<sup>72)</sup>○兮 威靈燁赫走風霆○兮  
 奪爾之命殘爾形○兮 剗心馘首隕幽圜○兮  
 妖氣永除二儀清○兮 元和溥暢霈澤盈○兮  
 咨爾妖魅盍自懲○兮 湔滌舊惡革性情○兮  
 休明吉祥與爲朋○兮 道迎甘澍洽群生○兮  
 焦枯以穌燠喝醒○兮 海裔天倪復杳冥○兮  
 遐躋遠集物莫撓○兮 永得爾所安且寧○兮  
 咨爾妖魅逝莫停○兮

68) 禹가 水神 巫支祁를 정하고 支祁井이라 하였다.

69) 瓠子. 황하 유역의 지명. 漢 武帝 때 홍수가 저 범람하니 독을 쌓고 宣房宮을 지었다고 한다. 이 때에 불려진 노래가 瓠子歌였다고 함.

70) 山東省에 있었던 큰 늪.

71) 漢 武帝 때에 黃河에 큰 홍수가 나서 독을 쌓고 거기에 宣房宮을 지었다.

72) 蓐收는 秋神. 또는 刑官. 六丁은 道敎의 卜神.

이 작품도 제목으로 보아 사부의 표지가 없으므로 면밀한 형식 究明이 중요하다. 并序도 없고 시종일관 가뭄귀신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사부의 3단 구성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나 보다시피 每句마다 압운을 하여 어떠한 사부보다도 이에 철저하고, 전형적인 楚辭體의 자구형식을 구사한 사부임에 틀림없다.

가뭄귀신의 악행과 죄상을 일일이 열거하여 준열하게 꾸짖고, 쫓아낸다는 작자의 행위는 무당의 기우제 굿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무당의 굿으로 하여 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던 유가 사대부들은 이러한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비를 부를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辭賦를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고, 그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자 했을 뿐이다. 이것은 비단 張維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呪術辭賦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자세는 지배계층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앞의 「遡旱文」과 다를 바 없으나 이 작품은 보다 더 주술적 성격이 강하다. 「遡旱文」이 上帝께 합리적으로 비를 내려야 할 당위성을 차분하게 호소한 반면에 여기서는 일방적이고 위협적으로 가뭄귀신을 내쫓는 행위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극적이고 감성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遡旱文」이 가뭄으로 인해서 벌어진 인간세계의 참상을 묘사한 데 반해서 이 작품은 가뭄귀신의 흉악한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고 있어 사실주의적인 태도와 신비주의적인 태도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신비적인 위력에 의존하고 있다. 어차피 민중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작품과 같은 위협적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전자가 「離騷」의 방식이라면, 이것은 韓愈의 「送窮文」이나 「祭鱷魚文」<sup>73)</sup>의 방식과 유사하다.

73) 「送窮文」은 가난한 선비의 기개를, 「祭鱷魚文」은 악어를 驅逐하는 내용을 呪術적인 방식으로 나타낸 唐 韓愈(768-824)의 辭賦의 작품 이름이다. 이

## V. 結論

張維의 작품을 주제에 착안하여 修身, 讚頌, 呪術에 속하는 10편을 묶었다. 이는 편의적인 구분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작품을 제한된 지면에 싣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지면의 절약을 위해서 부득이 작품번역문을 빼고 나니 독자에게 적잖은 불편을 주게 되었고, 작품의 형식구명에 중점을 두고 보니 내용검토가 허술하게 되어 작품의 概觀에 그치게 되었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우리 사부문학 연구에 조금이라도 빨리 보탬이 되고자 하는 조금함이 앞섰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심층적 연구는 아무래도 필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훗날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을 듯하여 안타까운 심정이다.

張維를 한국사부의 대표작가로 꼽기에는 작품의 양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작품의 양으로 말하면 李荇, 趙繼韓, 金義貞 등과 같은 기존의 辭賦家들이 그를 능가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질이나 시대적인 위치에서 장유는 그들보다 우월한 문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字句형식, 押韻, 3단 구성을 사부의 형식요건으로 잡고, 모든 작품에 일일이 이를 적용시켜 이것이 사부문학임을 입증하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필자가 제시한 사부의 형식요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노력하였다. 前代 사부의 大家들에 비해서 장유의 작품은 形式美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3단 구성력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판단이다. 押韻에 있어서도 缺韻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보인다. 그러나 字句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구형을 구사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형식상의 약점은 장유

---

두 작품은 한국의 呪術辭賦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의 개인적인 창작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사부가 본격적인 쇠퇴기에 놓여있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유가 아무리 뛰어난 창작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쇠퇴기에 들어서 있던 사부를 그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이러한 약점을 보였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前代의 辭賦大家들에게 별로 양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작품이 많지 않다 보니 주제의 다양성에서는 다소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학적인 진실성에서는 이전의 어느 大家에 뒤지지 않는다. 多作의 사부를 남긴 작가들의 작품 중에는 다소 품위가 떨어지는 것들이 적지 않게 끼어있기 마련인데 張維의 것에는 그런 작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張維 스스로가 말했듯이 노년에 이르러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들은 모두 불태워 없앴다고 했으니<sup>74)</sup> 그의 엄격한 안목과, 사부에 대한 열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진실한 가치관을 진지하게 행동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에는 작자의 개인적인 학문과 인격이 남달랐음을 말하는 것이고, 세간의 평가대로 그가 陽明學에 주력하였음을 辭賦로써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명학의 知行合一의 정신은 당대 성리학자들의 공허한 사부문학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가 과거를 管掌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그의 사부문학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의 사부에 대한 관점이나 작품은 당대의 사부문학 창작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장유를 뛰어넘을 辭賦家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서도 한국의 辭賦文學史에서 차지하는 그의 무게를 실감케 한다. 그는 韓國辭賦文學史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辭賦의 大家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74) 「鳥嶺賦」序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楚辭 여러 편을 읽었다. 古體의 辭賦를 표방하였으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중년에 이르러 辭賦에 발분하여 少時의 작품을 모두 불태워버렸다.”(張維, 『谿谷集』, 「鳥嶺賦」, p.27, “讀騷選諸作 盖有意於古詞賦而未能成章也 中年嘗發憤 悉焚少時所作”)

<參考 文獻>

『老子』 『詩經』 『周易』

張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한국고전번역원.

『荀子』, 臺灣 藝文印書館, 1978.

金星洙, 「許筠의 辭賦文學」, 『인문사회과학연구』 13, 공주대학교, 1998.

——, 「李奎報의 辭賦文學 補 I」, 『한어문교육』 7,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999.

——, 「李奎報의 辭賦文學 補 II」, 『한어문교육』 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0.

——, 「徐巨正의 辭賦文學 I」, 『한어문교육』 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1.

——, 「徐巨正의 辭賦文學 II」, 『한어문교육』 10,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2.

——, 「申光漢의 辭賦文學-浪漫 追慕類-」, 『漢文古典研究』 15,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 「申光漢의 辭賦文學-失志類-」, 『漢字漢文教育』 17,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6.

——, 「張維의 辭賦文學」, 『漢字漢文教育』 19,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7.

——, 『辭賦文學研究』, 公州大學校出判部, 2007.

——, 「申光漢의 辭賦文學-讚頌 修身類-」, 『漢文古典研究』 1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Abstract

*Jang yu's Sa-bu / Kim Seong Su\**

Jang-Yu was an authority on Chinese literature and as well a distinguished Sa-Bu writer who ended the grand finale with the flourish in the literary history of Sa-Bu. However, his role as a Sa-Bu writer has been hardly mentioned until these day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his achievement as a Sa-Bu writer and to summarize criticisms on his literary works of Sa-Bu. However, this would become an overview of the topic because of lack of space. This paper deals with 10 pieces of his works, only related to the topic of spiritual training, blessing and incantation. The translation of his works are left out in order to save space. Instead, this paper focuses more on study of style of Sa-Bu and discusses the 3-level formation, the use of rhyme and the usage of letters and phrases in detail. Since the core criterion of genre classification is deeply related to formal elements, the research on these elements is very important process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a-Bu. Thus, this study would help in defining the notion of Sa-Bu and also in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literary works of Jang-Yu.

【Key words】 Jang-yu, Sa-bu, Spiritual-training, Blessing, Incantation,  
Formation, Rhyme, Letters and phrases

|                                          |
|------------------------------------------|
| 투고일 : 5월 5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 |
|------------------------------------------|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 / kimss@kongju.ac.kr